

조선시대 남자 배자를 응용한 레이어드 룩 스타일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Layered Look by Applying Characteristics of Men's Baeja from The Joseon Dynasty

염순정(Jeong-Soon Yeom) · 김은정(Eun Jung Kim)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formative elements of Baeja, by applying them to the design of modern clothing.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ing Baeja is to propose unique layered look items that can be readily put together for various weather conditions and occasions, be easily wearable and bring out unique individualities. After carefully studying Baeja from Joseon dynasty, flexible and practical layered-look items are designed.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work. First, it is possible to apply Baeja elements, such as the silhouette, traditional materials, and colors, to modern clothes, for a layered-look. Second, Baeja characteristics have a profound potential for a modern layered-look design, in that it is sleeveless, its length is long at the front and short at the back, and it comes with slits on both sides and a wide belt. The items inspired by such characteristic can easily be worn over and draped around daily clothes, according to weather conditions and occasions. Third, many decorative elements of Baeja, including detailed ornamental method, knots, patchworks, and string decorations create a unique and traditional image in modern clothes. Ribbons which can adjust the width of clothes are both practical and decorative. A reversible jacket is created by utilizing the same traditional sewing method for both inner and outer fabrics. One item can be worn in different styles, which increases practicality. Fourth, traditional and modern materials go well together. Such methods can create an item with both modern sensibility and traditional chic.

주제어(Keywords) : 남자배자(men's Baeja), 레이어드 룩(layered look), 전통 장식기법(traditional ornament method), 전통소재(traditional materials)

I. 머리말

최근에는 친환경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패션에서도 격식보다는 기능성과 편안함, 실용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동이 잦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일교차가 심한 기온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용도와 기온에 맞게 자유롭게 겹쳐 입거나 덧입기 등의 다양한 스타일과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레이어드 착장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현대 패션의 디자인 경향도 일차적인 복식 디자인만의 의미를 넘어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 복식의 원형과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개발하여 이를 디자인에 적극 반영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패션의 흐름에 맞게 전통복식의 원형에서 조선시대 배자를 현대의상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응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배자는 형태면에서 입고 벗기에 편리한 좌우 대

Corresponding Author : Eun Jung Kim,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47, Fax: +82-62-530-1349, E-mail: kimej0234@hanmail.net

© Copyright 2012,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칭 구조의 전개 형이며,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이다. 옆트임과 끈이 있어 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소매가 없는 옷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배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단조로운 전통 평상복 위에 덧입음으로써 포인트(point)를 주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고 보온이나 멋내기 용도로 착용되었던 전통복식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배자는 형태적, 기능적, 미적인 측면에서 레이어드 룩 스타일과 연계해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조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조선시대 배자의 조형적 요소를 응용하여 이를 현대적 의상 디자인에 반영한다면 기온변화가 많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끼입거나 걸쳐 입기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상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배자의 선행연구는 전통배자의 역사와 변천을 고찰한 연구[9], (p. 10)[18], (p. 12)[25]가 있었고 패션 디자인을 위한 배자의 조형성 연구(p. 6)[2]가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배자의 재현과 현대적 활용을 위한 연구[15, 16]와 배자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 연구[3], (p. 4)[36]등이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배자의 복식사적 고찰, 전통 배자의 재현과 디자인에 활용 하는 연구는 다소 이루어 졌으나 전통배자의 조형적 요소를 응용하여 다양하게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레이어드 룩 스타일의 의상 디자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남자 배자의 조형적 요소를 재해석하여 현대의상 디자인에 응용하여 제작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온변화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덧입거나 겹쳐 입기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으며, 실용적이며 미적인 측면에서도 개성 넘치는 연출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아이템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배자 관련 문헌, 선행연구, 박물관 소장유물과 도록을 중심으로 배자의 명칭과 유래, 레이어드 룩의 일반적 고찰, 배자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배자의 조형적 요소를 응용하여 디자인하고 실물을 제작하였다. 연구범위는 전통배자 중 조선시대 중·후기(16C-20C 초)의 남자 배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남자 배자 유물이 비교적 다양한 형태가 출토되어 보존 되고 있어 유물의 고찰과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의 배자 중에서 현존 배자 유물의 형태나 치수, 색상, 소재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양호하고 각기 다른 형태, 색상, 소재의 배자류로 본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조형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자 7점을 임의로 선정하여 디자인 제작에 응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의 일반적 고찰

레이어드(layered)는 '층이 있는, 층을 이룬, 겹친'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은 복식용어에서는 '겹쳐 입기'를 의미하는데 옷을 여러 겹으로 끼입는 것으로 격식에 매이지 않고 각자의 개성에 맞게 갖춰 입는 것을 말한다(p. 85)[7].

레이어드 룩의 출현 배경은 1950년대 비트 세대에서 유래되어 형성된 1960년대 말 젊은이들의 히피문화와 히피패션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1950년대에 비트세대는 기존 사회의 모든 제약과 전통에 반항하며 새로운 전망과 실재를 추구하는 젊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의 잭 커로악(Jac Kerouac), 앨런 긴버스(Allen Ginsberg) 같은 신비주의적이고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보헤미안들처럼 자신해서 가족적 유대나 전통적, 사회적인 성공과 같은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고 관습적인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노동자 같은 차림으로 빈민가에 모여 선정적인 스윙에 맞춰 춤을 추고 흑인 음악과 블루스, 마약, 성, 종교, 민속 음악에 심취되어 생활했다. 비트족의 이러한 생활양식은 그들의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검은색의 베레모, 안경, 체크무늬 셔츠, 청바지 등의 독특한 패션으로 자신들을 표현했다. 이들은 뉴욕, 로스엔젤로스 등지와 샌프란시스코의 Haight Ashbury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으며 이들의 문화와 패션, 반문화 공동체는 1960년대의 히피문화를 형성하였다[32]. 이처럼 비트세대에서 파생된 'hippie'는 "사회적 전통적인 규범에 반대하고 평범하지 않은 옷, 긴 머리, 쾌락을 위하여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고 설명된다(p. 106)[21]. 또한 히피라는 명칭은 20세기 초 재즈 음악가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해서 50년대 중반부터 수용된 은어 "hep"에서 유래한 것이며 사전적 의미는 좌절된, 원기가 없는, 비이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서술 되고 있다(pp. 5-281)[31]. 이들은 자신의 행복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진부한 물질문명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물리적 가치와 전통적 미에 대한 개념, 기준에 반기를 들어 저항을 표현하였다. 반전 운동과 마약, 사이키델릭 아트와 록 음악 등에 심취 했고 그들의 감정과 생활양식을 의복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히피들의 의복스타일은 보편적인 청바지에서부터 에스닉(ethnic), 노스텔지어(nostalgia), 사이키델릭(psychedlic), 최첨단의 미니와 힙스터(hipster), 전시대의 모즈족(mods)과 비트족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모든 요소들을 일정한 기준 없이 착용하였다[32]. 이러한 히피스타일은 1960년대 말에 청소년의 대표적인 패션이었다. 그 시기의 젊은이들은 산업사회의 물질문명과 인조섬유로

대량생산되어 획일화된 의복에 반감을 가졌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낡고 오래된 중고 의류를 착용하였다. 또한 이들은 너털너털한 청바지, 긴 케이프, 아메리칸 인디언 튜닉, 인도의 자수장식 셔츠, 술 달린 베스트, 팬던트, 체인벨트, 부츠 등의 일정한 기준이 없이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코디네이트 하였다. 이처럼 히피문화에서 파생되어 격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착장방식, 코디네이션 방식이 점점 발전하여 레이어드 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p. 107)[11]. 레이어드 룩은 1970년대 더블 레이어드(double layered)라는 소매가 달린 러닝셔츠 타입에 소매가 없는 티셔츠를 겹쳐 입으면서 새로운 코디네이션의 방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레이어드 착장방식은 소재나 색상이 같고 디자인이 다른 아이템을 겹쳐 입거나(plus one) 디자인, 소재, 색상이 모두 다른 아이템을 겹쳐 입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레이어드 룩의 코디네이션 방식에 따라 색상이나 소재가 다른 코트나 재킷을 두벌씩 겹쳐 입는 더블 보텀(double bottom), 드레스 위에 다른 드레스를 겹쳐 입는 드레스 온 드레스(dress-on-dress)가 있으며, 팬츠 온 스커트(pants on skirt), 셔츠 온 셔츠(shirt-on-shirt), 멀티 레이어드(multi layered)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pp. 108-110)[14]. 레이어드 코디네이션 방식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조선시대 배자의 명칭과 유래

배자의 사전적 의미는 저고리위에 덧입는 조끼모양의 옷 [23] 앞여밈이 겹쳐지지 않고 마주 댄 옷의 총칭(pp. 248-254)[19] 등의 여러 가지 학설을 정리해보면 배자는 저고리, 포(袍)위에 덧입는 옷으로 여밈이 앞 중심에서 만나는 대금형(對襟形) 형태이며 소매가 짧거나 없는 의복으로 길이에 따라 장배자(長背子), 단배자(短背子)로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배자의 형태는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착용모

습이 나타나고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후기시대에 이르러 지금의 단배자 형태로 정착되었다[24].

조선시대 배자는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당고조(唐高祖: 618-626)가 수대업(隋大業) 중 내관들이 착용한 장수(長袖)의 소매 길이에서 반이 남아 있는 의복의 소매를 더 짧게 하여 ‘반비(半臂)’라 지칭한 것인데 오늘날의 배자(背子)다.”라는 기록이 있다(p. 1546)[27]. 또한 송문흠의 『한정당집(閒靜堂集)』에 “반비는 지금의 과자와 비슷하다. 다만 과자의 양기가 직수한 것이 다르다. 반비의 짧은 것은 지금의 배자다.”라는 기록이 있다[29]. 이러한 조선시대 배자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문종실록』, 『단종실록』에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온 조서와 칙서의 내용에 복청저사 “...채수권금적계배자(福靑紵絲縵圈金翟雞夾褙子)” (p. 265)[22], (p. 34)[4], 『성종실록』, 『중종실록』에 “...중궁(中宮)이 강녕전에 나아가 고명과 관복을 받고 이어 내외 명부의 축하를 받다(p. 213)[28], (p. 422)[13]. 하사한 관복과 물건은, 청저사채수권금적계협배자(靑紵絲縵圈金翟雞夾褙子)..”의 기록과 『선조실록』에도 “...청저사채수권금적계협배자(靑紵絲縵圈金翟雞夾褙子)”라는 기록이 있다(p. 470)[33]. 또한 인조실록에 “... 중국 사람이 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늬가 없는 흑견(黑絹)에 배자(褙子)를 말하는데(朝人所謂素服, 乃是無文黑絹, 去褙子者).”라는 기록이 있다(p. 217)[10]. 『영조실록』에서는 “...선조(先朝)께서는 정성(靜攝)하는 가운데 신료를 인접하실 때에는 항상 배자(褙子)를 입으셨다.”라는 기록이 있고(p. 255)[37], 정조실록에 소림에 사용된 의복 중에 “...초록운문대단배자(草綠雲紋大緞褙子)” (p. 287)[12], 『고종실록』에 “홍배자”의 기록이 있다(p. 557)[8]. 문헌에 남아 있는 기록을 살펴볼 때 배자는 “背子”, “褙子”로 기록되었으며 일반인에서부터 왕에 이르기 까지 보편적으로 착용하였고 상례(喪禮)·제례(祭禮)에, 내외명부 하사 관복에도 사

Table 1. Layered style

Double bottom	Dress-on dress	Pants-on skirt	Shirt-on-shirt	Multi layered
				
2007 F/W Vivienne Westwood	2005 F/W Chloe	2007 F/W Vivienne Westwood	2007 F/W Nina Ricci	1982, Fashion Designers Issey Miyake

Note. Paris collection, www.cft.or.kr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 남자 배자 유물의 특징

조선시대에 저고리, 포(袍)위에 일상복으로 착용하였던 남자 배자 유물을 살펴보면 배자의 앞길 길이가 뒷길 길이보다 길거나 짧은 형태, 양 옆선이 트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나, 깃의 형태도 원삼 깃의 형태, 둥근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배자가 있다.

Figure 1. Dongnae Jeong (1574-1669)은 동래정씨의 일가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배자의 깃이 방령형의 이중 깃이며 앞길과 다른 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양옆이 트인 형태이고 도련 선은 앞치짐을 준 완전한 직선으로 되어 있다. 겹감은 격자무늬가 있는 화문단(花紋緞)이고 안감은 주(紬)로 되어있으며 얇은 솜을 두었다. 동정과 끈은 없으나 흔적이 남아있어 동정과 고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pp. 145-149)[5]. Figure 2. Jinjong Hong (front, back)(1647-1702)는 흥진종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전장후단(前長後短)의 형태이며 앞길과 뒷길을 양옆의 2개의 띠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며 도련 선도 완전한 곡선의 형태이다. 겹감, 안감, 모두 명주가 사용되었고 약 1cm간격으로 누볐다(pp. 291-293)[35]. Figure 3. Yeo-on Kim (front, back)(1596-1665)은 무관 김여온의 배자로 겹감은 토주(吐紬), 안감은 명주로 약 1cm 간격으로 곱게 누볐다. 깃은 따로 없고 둥근 목선과 짧은 소매가 있으며 안단 쪽으로 선단을 대어 곱게 장식하였다. 앞자락은 길고 도련 선은 앞치짐의 완전한 곡선

형태이며 전장 후단의 형태이다. 김여온 배자는 겨드랑이 아래 18cm 옆트임이 있고 옆선이 A라인 형태로 조금 퍼져 있으며 도련 선은 직선으로 되었다. 앞길은 3개의 단추로 여미도록 되어있다(p. 47)[17]. 이러한 전장후단 형태의 배자 Figure 1-3은 무관들이 말을 탔을 때 뒷자락이 말 안장부위 까지만 내려오는 길이로 기마(騎馬)시 편리하도록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구성한 마상의(馬上衣)의 일종이다[26].

Figure 4. Byeon Lee (1636-1731)는 전주 이씨 변의 배자로 앞길과 뒷길의 연결은 어깨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끈을 양 옆의 고리에 걸어 앞에서 교차 시켜 입을 배자이다. 겹감은 화문 주, 안감은 명주에 솜을 두고 곱게 누볐다. 이 배자의 특징은 뒷길이 중심이 되어 앞길은 등에서 연결된 좁은 끈으로만 구성되었다. 여미는 방식은 앞에서 X자로 엇갈려 옆 고리에 걸어 묶는 배자이다. 전주 이씨 변의 배자는 형태와 여미는 방식이 일반 배자와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5. Gojong Baeja (1864-1907)는 고종이 방한용으로 평상시에 입었던 배자로 앞에서 살펴본 Figure 1-3의 배자와 다른 형태이다. 앞길이 짧고 뒷길이 긴 전단후장(前短後長)형이며 원삼 깃 모양의 깃이 있고 양 옆이 완전히 트여 있다. 또한 배자의 앞 중심선, 진동 둘레선, 도련 선을 따라 검은색 선을 가늘게 둘러서 배자의 윤곽선을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장식되어있다. 겨드랑이 밑에는 고리가 달려 있고 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끈을 고리에 걸어 앞에서 매게 되어있다. 겹감은 황금색 영초단(英縞緞)이고 안감은 녹색 기모용(起毛絨)이 사용되었다(pp. 145-149)[5]. Figure 6.



Figure 1. Dongnae Jeong. (2005). Myeong Seon. 5, p. 145.



Figure 2. Jinjong Hong (front, back). (1995). Two thousand years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s. 35, p. 291.



Figure 3. Yeo-on Kim (front, back). (2006). A study on military official uniforms with hyungbae, embroidered patches. 17,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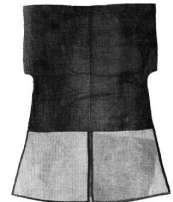


Figure 4. Byeon Lee. (2005). Myeong Seon. 5, p. 147.



Figure 5. Gojong Baeja. (2005). Myeong Seon. 5, p. 149.



Figure 6. Nu Bi Baeja. (2003). A Korean traditional costume aesthetics and truth of their original form. 19, p. 254.



Figure 7. Fur Baeja. (2010). A Study on Reproduction of the Traditional Baeja and Design for Morden Application. 15, p. 26.

Nu Bi Baeja (1900년대 이후)는 누비배자이다. 이 배자는 걸감, 안감 모두 흰색 명주에 솜을 두어 곱게 누웠으며 뒷길이 길고 겨드랑이 아래 고리를 달아 앞길 진동아래 끈을 고리에 걸어 앞에서 묶는 형태이다. 깃은 뒷고대 부분만 깃을 달았고 앞부분은 꼬집어 박은 것이 아니라 박음 선만으로 깃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Figure 7. Fur Baeja (1900년 이후)는 털배자로 갈색의 걸감 화문단에 안은 흰색 털을 사용하였고 겨드랑이 아래 고리를 달아 앞에서 여밀 수 있게 되어있는 방한용 털배자이다(pp. 248-254)[19].

제시된 조선시대 중·후기에 출토된 남자배자의 유물을 살펴보면 Figure 1-3은 전체 길이가 긴 장배자와 깃의 형태도 둥근 형태, 방령의 형태 등 종류가 다양했으나 조선후기에 출토된 배자 Figure 5-7 깃의 형태가 원삼의 깃과 같은 형태가 많았으며 길어도 점점 짧아진 단배자 형태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배자의 앞길과 뒷길의 형태도 전장후단(前長後短)형에서 전단후장(前短後長)의 형태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또한 배자의 뒷길과 앞길이 매듭으로 연결된 형태, 양옆도 매듭, 넓은 띠로 연결된 형태에서 길이가 짧아지면서 어깨는 앞길과 뒷길이 연결된 형태로 변화 되었고, 양옆은 트이거나 막아진 형태의 유물을 볼 수 있다. 여미는 장식도 매듭대신 진동 아래 고리에 끈을 끼워서 앞에서 묶는 형태, 진동 밑에 고름이 달린 형태 등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봄 가을에는 겹 배자, 여름에는 홑 배자, 겨울에는 털배자를 저고리위에 덧입어 방한용으로 입었으며 일상용도 외에 화려한 배색의 배자는 저고리위에 걸쳐 입을 멋을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조선시대 남자 배자 유물의 조형적 특성

조형(造形)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형상이나 형태를 만들(p. 997)[6]을 말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조형은 점, 선, 면, 색, 빛, 공간, 시간 등의 요소와 다양한 재질을 이용하여 시각적, 촉각적, 또는 역학적으로 2차원, 3차원 공간 내에 자율적이며 창조적으로 형(shape)이나, 형태(form)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 입체구성 평면 구성으로 분류된다(p. 64)[1].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복식 디자인에서 형태, 선, 색채, 소재, 문양 등은 복식의 기본적인 조형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선시대 배자의 조형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의상 디자인에 응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 배자유물의 조형적 특성 중 형태를 중심으로 색상, 소재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형태

일반적으로 복식 형태의 기본은 착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편리함과 기능적인 목적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선시대 배자는 전통복식의 여러 가지 조형요소들 중에서 그 당시의 복식에서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깃의 형태적 조형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기능적이고 미적인 특성을 살려 재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자의 견해로 배자 유물의 깃 형태를 살펴보면 봉제과정에서 착용자의 얼굴형과 저고리의 형태에 따라 제작자가 임의대로 길이와 폭을 조절하여 깊게 파기도 하고 방령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Figure 6과 같이 누비 박음선만으로 원삼 깃의 모양을 나타내거나 Figure 7의 배자처럼 원삼과 같은 형태의 깃 모양을 하고 있지만 깃을 별도로 만들어 달지 않고 뒷고대만 별도의 깃을 달고 앞길은 안쪽에서 0.1cm 꼬집어 박아 원삼 깃의 모양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배자 깃의 형태 즉 원삼 깃의 형태나 Figure 5, 둥근형인 Figure 2, 3, 네모난 방령형인 Figure 1형태는 저고리의 깃의 V형 목선과 겹치지 않게 하면서도 날카로운 직선형의 깃을 감싸듯 보완하여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배자에서 그 당시 복식의 미의식과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성으로 기능적인 실용성과 멋과 개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식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조선시대 배자 유물 Figure 1-3에서 보면 길이가 전장후단형(前長後短)으로 기마(騎馬)시에 편리함을 도모하여 앞자락은 저고리 길이를 가릴 만큼 길지만 뒷자락은 말을 탈 때 거주장스럽지 않도록 뒷자락의 길이를 짧게 한 형태 등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실용성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배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방식으로 착용하였는데 양옆이 트인 배자의 형태는 끼입을 때 품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덧입을 수 있으며 품을 끈으로 조절하여 여밀 수 있도록 고안한 기능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배자 유물의 장식적인 특성은 Figure 5, 7에서도 볼 수 있는데 남자 배자에서 앞 중심선과 진동선, 도련선을 검은색 선단으로 장식하여 배자의 윤곽선과 걸감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장식효과를 나타냈다. 부드러운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룬 당의의 옆선과 도련 선을 융합한 형태를 살릴 수 있다. 흥진중 Figure 2의 배자에서는 앞, 뒷길의 연결을 넓은 띠로 연결하여 끼입기에 편리한 기능성과 장식성을 살펴 볼 수 있다.

2. 색상

조선시대 『궁중발기』에 기록된 남자 배자 색은 양남, 남송, 연지회색, 노인은 회색, 회보라, 미색 등이 사용되었고, 저고리 색이 분홍, 보라색이면 배자색은 초록, 남송, 두록 색

을 사용하였다(p. 12)[34].

Figure 1, 2는 아직도 색상이 남아 있어 황색계열의 색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Figure 5는 유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아직도 선명한 색상을 알 수 있다. 짙은 황금색, 안은 녹색을 배색하였고, 배자의 윤곽선을 따라 검은 색 선으로 마무리하여 겉감의 황금색과 안감의 녹색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Figure 7의 짙은 짙은 자색의 단을 사용하였고 안은 토끼털을 사용하여 겉감의 짙은 색과 안감의 토끼털이 대비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짙은 짙은색, 안은 옅은 색, 혹은 유사색을 배색하여 서로 상생의 색 대비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자의 배색은 단조로운 색으로 구성된 남자 평상복과 유사 대비, 보색 대비의 효과로, 상·하의 경계가 되는 도련 선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화려함을 더해주는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재

조선시대 배자 유물에 사용된 소재는 궁중발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봄에는 주(紬), 여름에는 사(紗), 가을에는 사(紗)와 단(緞), 겨울에는 단(緞)과 모피(毛皮)를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자의 소재로 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단, 주, 초 등의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된 직물은 별문단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속갑사, 갑사, 속고사, 장원주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pp. 8-23)[20].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내외 명부의 하사 품목에 “청저사채수권금적계협배자(靑紵絲緞圈金翟鷄夾褙子), 무늬 없는 흑견(黑絹), 초록운문대단배자(草綠雲紋大緞褙子)” 등의 기록에서 배자의 소재로 사, 견, 단 등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구(徐有矩: 1764-1845)는 “초서(貂鼠) 등의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고 비단으로 감싼 것을 모(毛) 배자라고 하고 주(紬)를 겹으로 쓰고 그 안에 솜을 댄 것을 겹 배자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p. 432)[30].

Figure 2는 홍진중(1647-1702)의 배자로 겉감, 안감, 모두 명주로 되어있고 약 1cm간격으로 누볐다. Figure 3은 무관김여운(1596-1665)의 배자로 겉감은 토주(吐紬), 안감은 명주로 약 1cm 간격으로 곱게 누볐다. Figure 4는 전주 이씨 변(1636-1731)의 배자로 겉감은 화문 주, 안감은 명주에 솜을 두고 곱게 누볐다. Figure 5는 고종(1852-1919)이 방한용으로 평상시에 입었던 배자로 소재의 겉감은 황금색 영초단(英納緞)이고 안감은 녹색 기모용(起毛絨)이 사용되었다. Figure 6은 흰색 명주에 솜을 두어 곱게 누볐다. Figure 7은 털배자로 겉감은 갈색의 화문 단이고 안은 흰색 털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배자의 소재는 안에 받쳐 입는 저고리와 소재를 같이하거나 계절에 맞는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안에 받쳐 입는 옷과 배자가 서로 어울려 보완하

는 상생의 조화를 고려했던 미적인 감각과 계절과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소재를 사용하는 실용적인 안목을 엿볼 수 있다.

IV.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제작 의도

조선시대 배자의 문헌고찰과 유물 토대로 배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보면 조선시대 배자는 입고 벗기에 편리한 좌우 대칭과 전개형의 구조,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 옆트임과 끈 등으로 자유롭게 품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배자에 다양한 전통 소재, 색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자의 조형적인 요소가 기온과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레이어드 룩 스타일의 의상 디자인에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모티브이다.

이에 본 작품 제작은 조선시대 배자의 조형적 요소를 현대의상에 응용하여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멋이 어우러져 모던하면서도 한국적인 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전통소재와 현대 소재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음을 나타내어 전통소재의 활용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작품에서 응용할 조선시대 배자는 고종 배자, 동래정씨 배자, 홍진중 배자, 전주 이씨 변 배자, 1900년대 이후 누비 배자, 털 배자, 김여운 배자로 유물배자 7점이다. 유물배자 7점을 선정한 이유는 각각 배자의 독특한 형태와 세부적인 장식 등이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이러한 유물들에서 디자인하고자 하는 영감과 힌트를 얻어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작품 해설 및 사진

Design 1은 고종 배자의 깃선, 홍진중 배자의 윤곽선, 옆선의 띠 등의 모티브를 응용하여 디자인한 작품이다. 구성은 소매 없는 간이 자켓 형태로 셔츠 위에 덧입는 셔츠 온 셔츠, 자켓 안에 코디네이션해서 셔츠 온 드레스 형태 등의 레이어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색상은 짙은 옅은 연두색과 안은 아이보리 색상이며 소재는 봄과 여름에 손쉽게 걸쳐 입을 수 있는 얇은 천으로 겉감은 옥사에 작은 꽃무늬자수를 앞 중심선과 뒤의 양어깨에 놓았고, 안감은 금사가 혼합된 양단을 사용하여 소매 없는 현대적 자켓 형태에 전통 소재를 활용해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세부적인 기법은 한복의 겉과 안이 같게 하는 봉제 기법을 응용해 겉과 안을 겹옷으로 입을 수 있고 2벌의 효과를 연출할 수 있으며 뒷 선의 끈 장식으로 품을 조절할 수 있는 실용성을 도모하였다.

Table 2.
Design 1 applying Kojong's Baeja and Jinjong Hong's Baeja

Graphic		Photograph		
Front	Back	Front	Back	Detail
Basic motif	Applied motifs are: collars from Kojong's Baeja, outlines and waist belts from Jinjong Hong's Baeja.			
Color	Light grass-green and ivory.			
Material	Oksa and Yangdan.			
Layered style	Shirt-on-shirt or dress-on-dress coordinations.			
Concept	Designs are for spring and autumn. Oksa, Yangdan, embroidery, and Goreum(ribbon) are applied to create traditional images. By utilizing the same traditional sewing method for both inner and outer fabrics, one piece of item can be worn in two sty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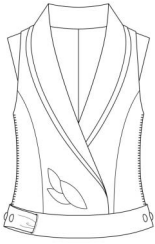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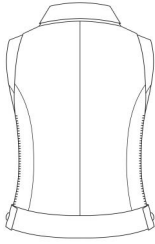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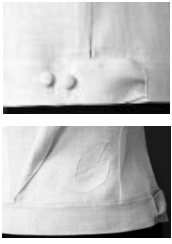
Table 3.
Design 2 applying Dongnae Jeong family's Baeja and Jinjong Hong's Baeja

Graphic		Photograph		
Front	Back	Front	Back	Detail
Basic motif	Applied motifs are: the length, which is long at the front and short at the back, and the overall silhouette of Jinjong Hong's Baeja; Mu(patch) and slits on both sides and a centered Goreum(ribbon) from Dongnae Jeong family's Baeja.			
Color	Light sky blue and purple.			
Material	Oksa and silk.			
Layered style	Dress-on-dress coordination.			
Concept	Designs are for spring and autumn. Triangle patches(Mu) make clothes fit for daily activities. Mix and match of traditional and modern materials increases practicality and creates sensibility combined with traditional chic.			

Design 2는 흥진중 배자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전장후단의 형태를 활용하였다. 동래정씨 배자는 옆선의 무, 양옆의 트인 도련선이 다른 배자에 비해 모티브로 유용하여 고름이 없으나 앞 중심의 고름의 흔적이 있어 모티브를 응용해 디자인한 작품이다. 구성은 소매 없는 코트 형태로 원피스위에 덧입거나 간이 외투로 코디네이션하여 드레스 온 드레스 등

의 레이어드 룩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색상은 옅은 하늘색과 자주색이며 소재는 봄·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옥사와 쉬폰을 사용하여 전통소재와 현대적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세부적인 기법으로 동래정씨 배자 앞길의 무를 응용하였다. 무를 응용해 신축성이 없는 소재 옥사를 보완하기 위해

Table 4.
Design 3 applying a Baeja worn by Byeon from Jeonju Lee family and Nubi(quilted) Baeja from the early 20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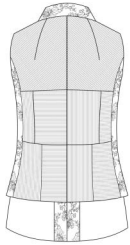



Graphic		Photograph		
Front	Back	Front	Back	Detail
				
Basic motif	Applied motifs are: crossed X shoulder ribbons from a Baeja worn by Byeon from Jeonju Lee family; overlapping front flaps, trimming, and collars from Nubi(quilted) Baeja from the early 20 th century.			
Color	Light violet and apricot.			
Material	The material is Mosi.			
Layered style	Shirt-on-shirt coordination.			
Concept	Mosi is used for summer. Crossed X shoulder ribbons are applied to design a jumper. The size can be adjustable with ribbons on both sides. By utilizing Gob-sol technique, both inner and outer fabrics can be worn as a reversible a two-face jumper.			

얇은 쉬폰으로 삼각 무를 달아 트임처럼 보이면서도 외투의 폭에 여유를 주어 활동하기에 편리함을 도모하였다. 배자의 띠를 벨트로 활용하였고 이중으로 하여 한복의 고름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Design 3은 전주 이씨 변 배자의 X로 교차된 어깨끈과 1900년대 이후의 누비배자의 여밈 방식, 깃선, 도련선 등의 모티브를 응용해 디자인한 작품이다. 구성은 소매 없는 간이 점퍼 형태로 두벌의 점퍼를 겹쳐 입을 듯한 레이어드 룩 스

타일을 표현하였다. 셔츠 온 셔츠를 코디네이션하여 레이어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색상은 겉감에 열은 보라색과 안감은 열은 살구 색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소재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모시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점퍼형태로 디자인을 시도해 봄으로써 전통 소재를 현대적 의상에 접목시켜 다양한 활용도를 모색하였다. 세부적인 기법으로 곱술기법으로 겉감과 안감을 함께 하는 봉제법으로 안을 겉옷으로 입을 수 있어 2벌의 효과

Table 5.
Design 4 applying Yeon-on Kim's Baeja and a fur Baeja from the early 20th century

Graphic		Photograph		
Front	Back	Front	Back	Detail
				
Basic motif	Applied motifs are: the length, which is long at the front and short at the back, round collars, and Nubim technique from Yeon-on Kim's Baeja; outlines and decorative motifs from a fur Baeja from the early 20 th century.			
Color	Purple and black.			
Material	Silk and Yangdan.			
Layered style	Double bottom coordination.			
Concept	Designs are for autumn and winter. Traditional Nubim(quilting) technique is applied to insert cottons between the silk sheets for retaining warmth. Mix and match of a modern silk fabric and a traditional Yangdan creates a harmonious and traditional image			

를 연출할 수 있는 실용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배자의 옆선 트임을 징금수로 장식하여 뒤집었을 때에도 겉감과 같이 보이게 하였다. 배자의 끈의 이미지를 응용하여 품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각 잇기의 이미지를 응용해서 겉감과 안감에 아플리케로 장식하여 모시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Design 4는 김여온 배자의 전장 후단 형태, 둥근 깃선, 누빔 기법, 1900년대 털 배자의 윤곽선의 장식 등의 모티브를 응용해 디자인한 작품이다. 구성은 베스트 형태로 니트 셔츠, 티셔츠, 원피스, 자켓 위에 걸쳐 입는 등으로 코디네이션하여 셔츠온 셔츠, 더블보텀 레이어드 룩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색상은 검은색과 자주색을 사용하였다. 소재는 가을과 겨울에 입을 수 있게 실크에 솜을 두어 0.5m간격으로 고르게 누볐으며 선단 장식으로 무늬 있는 양단을 사용하여 실크와 전통 양단 소재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세부기법으로는 누빔의 선을 가로 세로로 교차시켜 조각 잇기에 모던한 이미지를 더했으며 솜을 두고 누벼서 보온 효과를 도모했다. 김여온의 둥근 깃선,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 선단을 넓게 하여 하이넥으로 부드러운 이미지와 옷 위에 걸쳐 여미지 않았을 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김여온 배자의 전장후단(前長後短)의 형태를 응용해 앞길은 길고 뒷길은 짧게 하여 누비 천이 두꺼워 의자에 앉을 때 접이지 않도록 뒷길을 짧게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배자의 실용적인 특성을 살려 현대적 의상에 접목시킨 것이다.

V. 맺음말

조선시대 배자는 저고리, 포(袍)위에 덧입는 옷으로 여미이 앞 중심에서 만나는 대금(對襟)형태이며 소매가 없거나 짧은 의복이다. 길이에 따라 장배자(長背子), 단배자(短背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인부터 왕에 이르기 까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착용하였다. 이러한 배자의 형태는 입고 벗기에 편리한 좌우 대칭 구조의 전개 형태, 저고리 위에 끼입을 때 품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입을 수 있도록 한 옆선 트임과 끈의 형태, 기마(騎馬)시 안장에 밟히지 않게 한 전장후단(前長後短), 방한을 목적으로 한 배자의 전단후장(前短後長)도 볼 수 있다. 또한 배자의 앞 중심선과 진동선, 도련 선을 따라 검은색 선단을 대어 장식한 형태는 배자의 겉감 색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앞 중심선의 직선과 도련선의 곡선 형태, 전체적인 윤곽선을 강조하는 장식효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색상과 소재에서도 조형적 특성을 볼 수 있었다. 배자의 색상은 단조로운 색으로 구성된 남자 평상복

과 다른 색을 사용하여 상의나 하의와 유사 대비, 보색 대비를 이루어 상의의 도련 선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강조하였다. 배자 소재는 봄· 가을에는 생초, 세주, 화문단, 명주, 속고사 등이 주로 사용하여 여름에는 사, 겨울에는 명주에 솜을 두어 누볐고, 방한용으로는 토끼털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배자는 색과 소재에서도 안에 받쳐 입는 옷감의 색, 소재에 알맞게 사용되어 미적인 측면에서 장식성과 계절에 맞는 기능성, 실용성을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자의 조형적 특성은 반영하여 상황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실물 제작에 있어 레이어드 룩 스타일을 위한 의상으로 제작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자에 사용되었던 형태적인 윤곽선, 전통 소재, 색상 등의 조형요소를 현대적인 의상과 접목시켜 레이어드 룩 스타일을 의상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출성이 있다.

둘째, 배자의 소매가 없는 형태, 전장 후단, 옆트임, 넓은 띠 등의 조형요소들은 일상에서 기온에 맞게 용도에 따라 손쉽게 덧입거나 걸쳐 입을 수 있어 다양하게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다.

셋째, 배자의 세부적인 장식 기법, 매듭, 조각 잇기, 끈 장식 등을 현대 의상에 응용하여 전통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었다. 특히 전통봉제 기법을 활용하여 안과 겉으로도 입을 수 있는 2벌의 효과를 응용해 1벌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다.

넷째, 전통 소재와 현대적인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현대적인 모던함과 전통적인 멋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

Reference

1. Angraphics. (1994). *Design dictionary*. Seoul: Angraphics.
2. Bu, H. S. (1998).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Baeja for modern fashion desig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3. Cho, O. S. (2003). A Study on the design development of Baeja.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7(1), 2.
4. Danjongsillok. (1455). *Danjong, No. 14. A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5. Dankook Seokjusun Memorial Museum. (2005). *Myeong Seon*. Seoul: Dankook Seokjusun Memorial

- Museum.
6. Doosan Corporation. (2005). *A Korean language New Donga dictionary*. Seoul: Doosandong.
 7. English dictionary. (1999). *Webster*. Seoul: YBM Sisa.
 8. Gojongsillok. (1877). *Gojong, No. 14. A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9. Im, M. M. (1978). A Study on the Baej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6(2), 3.
 10. Injosillok. (1627). *Injo, No. 16*.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1. Jeon, H. J. (2007). *Modern Fashion and Designer*. Seoul: A publishing company Shinjeong.
 12. Jeongjosillok. (1800). *Jeongjo, No. 54. A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3. Jungjongsillok. (1518). *Jungjong, No. 32. A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4. Kim, J. B. (2002). *The Keyword of Fashion*. Seoul: A publishing company Sidae.
 15. Kim, W. G. (2010). A Study on Reproduction of the Traditional Baeja and Design for Modern Application.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0(3), 22.
 16. Lee, E. H., & Cho, H. S. (2009). Historical analysis and modernization work of Korean traditional Baej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9), 116.
 17. Lee, E. J., Cho, H. S., & Ha, M. Y. (2006). *A study on military official uniforms with hyungbae, embroidered patches, The Creeping animal hyungbae*. Seoul: Minsokwon.
 18. Lee, J. Y. (1997). *Comparative study of clothing culture in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Baej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19. Lee, K. J., Hong, N. Y., & Chang, S. H. (2003). *Korean traditional costume aesthetics and truth of their original form*. Seoul: Youlhwadang.
 20. Lee, S. Y. (2008). *A study on the baeja (Ve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1. Lee, Y. H. (2002). *The culture of fashion*. Seoul: Yehaksa.
 22. Moonjongsillok. (1450). *Moonjong, No. 3. A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3. Naver a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11). Baeja. Retrieved April 20, 2011 from <http://krdic.naver.com>.
 24. Park, D. I. (1992). A study on the changes in Baeja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9(1), 132.
 25. Park, D. I. (1997). *A study about Banbei's origin and the process of its change based on Korea's and Chinese's Banbe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6. Park, S. S., & Kim, H. M. (2002). An empirical analysis of functional equestrian clothing of Joseon. *Dankook Seokjusun Memorial Museum*, 20, 45.
 27. Seongmun Publisher. (1978). *Samjaedohoe*. Seoul: Seongmun Publisher.
 28. Seongjongsillok. (1470). *Seongjong, No. 5. A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9. Song, M. H. (1788). *Hanjeongdangjip. No. 7*.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 Studies.
 30. Suh, Y. G. (1835). *Limwonsipyukji. No. 2*.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 Studies.
 31. Suh, Y. R. (1994). *Study on the american hippies and their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32. Suh, Y. R., & Jo, G. H. (1995). A study on the american hippies and their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2(2), 278-286.
 33. Sunjosillok. (1603). *Sunjo, No. 161. A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34. The Academy of Korea Studies. (1994). *Gomunseojeipseong, No. 12*.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 Studies.
 35.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995). *Two thousand years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s*. Seoul: Seokjusun Memorial Museum.
 36. Wang, S. J. (2007). *A study on the modern design of Baeja applied from YoonBok Shin's paint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37. Yeongjosillok. (1747). *Yeongjo No. 66. A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접 수 일 : 2012년 7월 1일
 심사시작일 : 2012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8월 1일